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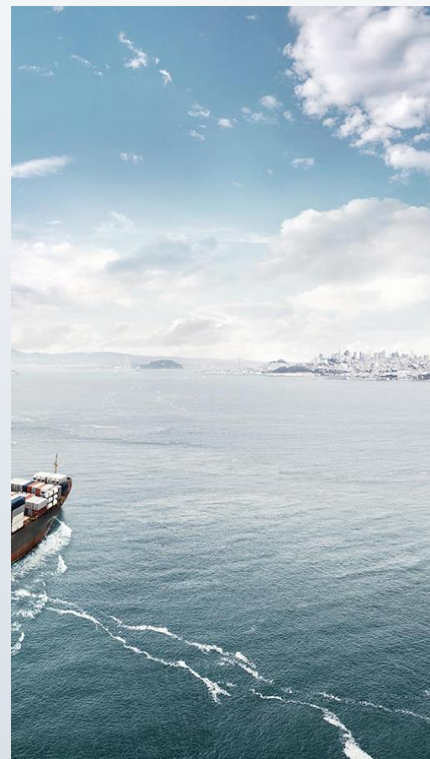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273

Updated November 5, 2019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5
- BC Sales Report	
Tankers	9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3
Key Indicators	16
STL News & Information	18
Contact Information	19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ISSUE & TREND

1. 해양진흥공, KOBC 마리타임 컨퍼런스 개최..."글로벌 해운 전망"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는 11 월 5 일 부산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9 KOBC 마리타임 컨퍼런스(2019 KOBC Maritime Conference)'를 개최한다.

매년 개최되는 'KOBC 마리타임 컨퍼런스'는 글로벌 해운·조선 분야와 해양금융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청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SSY Consultancy & Research ▲Vessels Value ▲MSI(Maritime Strategy International)와 같은 해운리서치 전문기관뿐 아니라, ▲BNP Paribas ▲ING Bank 와 같은 선진 금융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해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위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KOBC 마리타임 컨퍼런스가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과 미래를 대처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해운인프라투자 ▲금융채무보증 ▲친환경 설비 개량 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과 함께 해운시황 정보, 선박가치 평가 등 해운지식정보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2. 상승세 조선, 하락세 철강...엇갈린 성적표

3 분기 철강제품 수출액 전년 동기대비 감소 반면 선박류는 증가

철강업계와 조선업계가 3 분기 수출액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철강제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선박류 수출액은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쿼터제 강화 등이 철강업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선업계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선 및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등의 수혜를 톡톡히 입었다.

I . ISSUE & TREND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철강제품 수출액은 76억 53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인 92억 8300만 달러 대비 약 17% 감소했다.

철강제품의 수출액 하락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철강 수요가 부진한 점이 한 몫 했다. 반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심화되며 쿼터제는 점차 강화됐다.

반면 선박류 수출액은 51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인 36억 9200만 달러 대비 약 42%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글로벌 조선 시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0년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황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로 낮추는 조치)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올해 LNG 선 발주량이 전년보다는 못하지만 하반기부터 카타르 등에서 대규모 LNG 선 발주 시작이 예고돼 있는 만큼 상승세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해운업 대형화 추세에 따른 초대형 컨선 발주도 차츰 시동이 걸리고 있다. 컨선은 지난해와 달리 상반기 부진한 발주로 조선사들의 애를 태웠다. 하지만 이달 들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2만 3000TEU급 컨선을 각각 6척, 5척 수주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3. 'APEC 선원 네트워크 사무국' 한국에 문 열어

지난 23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서 개소식 열고 공식업무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지난 23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하 APEC) 선원네트워크(SEN)'의 사무국을 열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을 비롯해 프란시스 자카리에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사무총장, 박동선 APEC 인적자원개발분과 의장, 에두라도 산토스 필리핀 해양대학교 총장, APEC 20개국 정부 대표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APEC 선원 네트워크는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APEC 공식 선원 협력기구로서 전 세계 선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APEC 지역 내 선원들의 교육과 훈련,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과 국제 해운시장 진출 및 교류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개소식에 앞서 열린 전문가위원회에서는 'APEC 선원 네트워크 승선 프로그램 사업'과 'APEC 선원 네트워크 해사영어 커뮤니케이션 패키지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결정했다. 'APEC 선원 네트워크 승선 프로그램 사업'은 APEC 에서 1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 선박으로 개발도상국 선원들에게 실습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0년에는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10명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I . ISSUE & TREND

이와 함께 우선 사업으로 결정된 'APEC 선원 네트워크 해사영어 커뮤니케이션 패키지 사업'은 APEC 지역 내 선원들의 해사영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사영어 교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1년까지 회원국들과 해사영어 교재를 공동개발하고 향후 APEC 선원 네트워크 인증을 받아 회원국 선원들의 영어교육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APEC 선원 네트워크는 우리가 해운 선진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유치한 것으로 이를 통해 APEC 지역 내 선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급변하는 세계 해운시장에서 선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APEC 선원 네트워크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4. 아·태지역 경제통합 가시화됐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선언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통합이 가시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15개국은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5개국 정상은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 노력하기로 했다. 각국 정상은 또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인 RCEP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RCEP은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간 협상을 진행, 20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 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RCEP 챕터는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금융, 통신, 전문서비스 부속서),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STRACAP),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5개 챕터(예외, 분쟁해결 등)다.

■ RCEP 의의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 세계인구 절반, 세계 GDP 27조 4천억달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해 안정적인 역내 교역, 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I . ISSUE & TREND

RCEP 에는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RCEP 타결이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우리 기업의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아세안 중심성을 표방하는 RCEP 타결은 아세안, 인도 등과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킴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본격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을 포함, 역내 교역·투자 여건 개선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RCEP 협정문 합의 내용

RCEP 협정문 합의 내용은 ▲최신 무역규범 확립 ▲무역원활화 기반 마련 ▲서비스 및 투자 규범 개선 ▲신남방 핵심국가들과 장기적 파트너십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RCEP 협정문에는 한-아세안 FTA 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지식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규범을 확보했다.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 디지털 기술발전을 반영해 성장하는 RCEP 역내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지식재산권 챕터를 통해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을 마련, 그동안 지식재산권 챕터가 없었던 한-아세안 FTA 를 보완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챕터를 도입하고 정부조달, 경쟁 등 기존 한-아세안 FTA 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챕터를 마련해 해당 분야 투명성을 제고했다.

16 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해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기업의 FTA 활용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원산지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낮춤으로써 FTA 활용역량이 미진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 가공해도 재료누적이 인정돼 역내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 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챕터를 도입, 통관분야를 원활화해 우리 기업의 RCEP 활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아세안 대비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규범 강화 및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 수준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비스는 기존 아세안 등과의 FTA 보다 자유화 요소를 강화해 역내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신남방 핵심국가들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확보해 역내 경제발전 및 성장을 위한 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했다.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관계 속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함으로써 아세안 등 역내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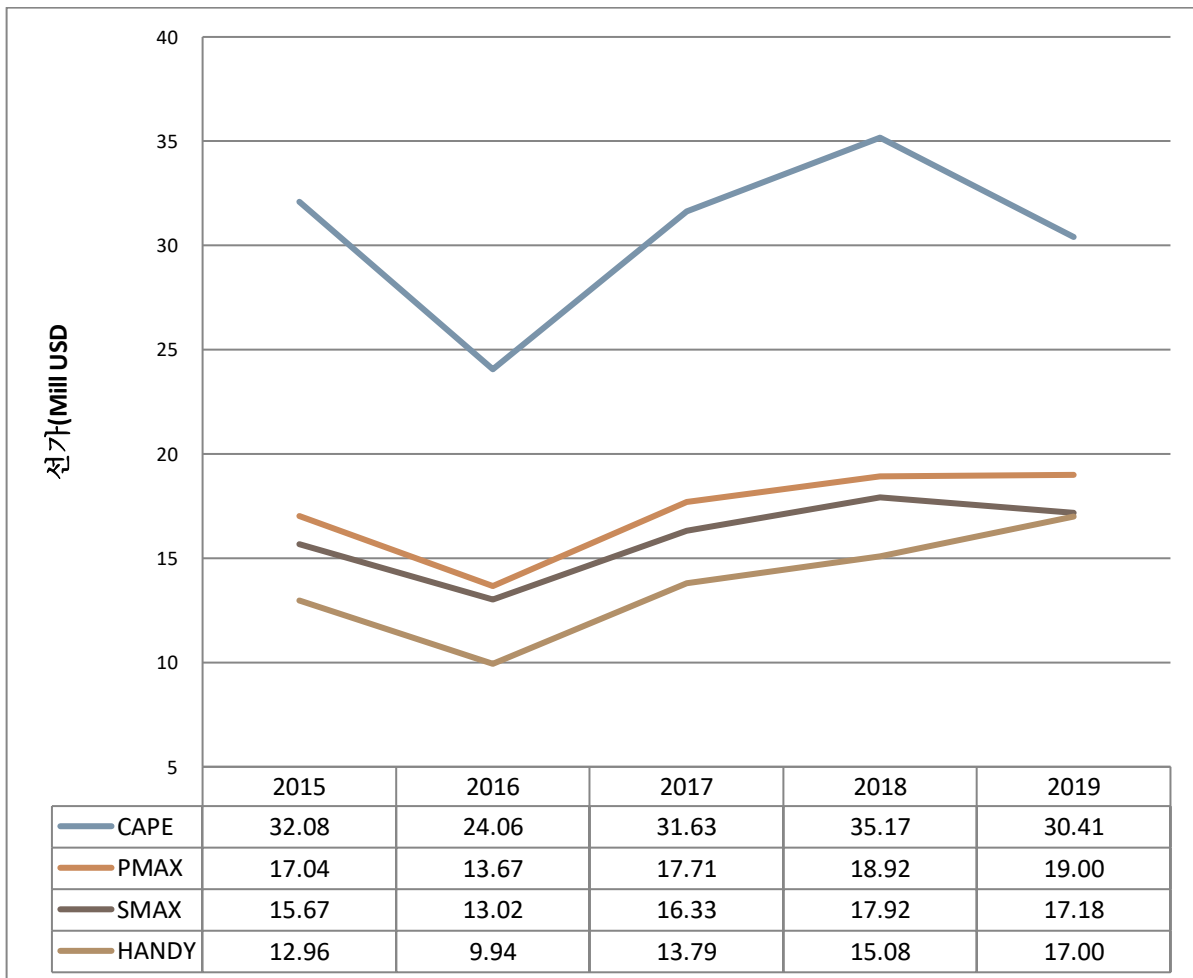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5	2016	2017	2018	2019
Capesize 180K	32.08	24.06	31.63	35.17	30.41
	-31.45%	-24.99%	31.43%	11.20%	-13.54%
Panamax 76K	17.04	13.67	17.71	18.92	19.00
	-30.16%	-19.80%	29.57%	6.82%	0.42%
Supramax 58K	15.67	13.02	16.33	17.92	17.18
	-36.04%	-16.91%	25.44%	9.69%	-4.12%
Handysize 37K	12.96	9.94	13.79	15.08	17.00
	-33.20%	-23.32%	38.78%	9.37%	12.73%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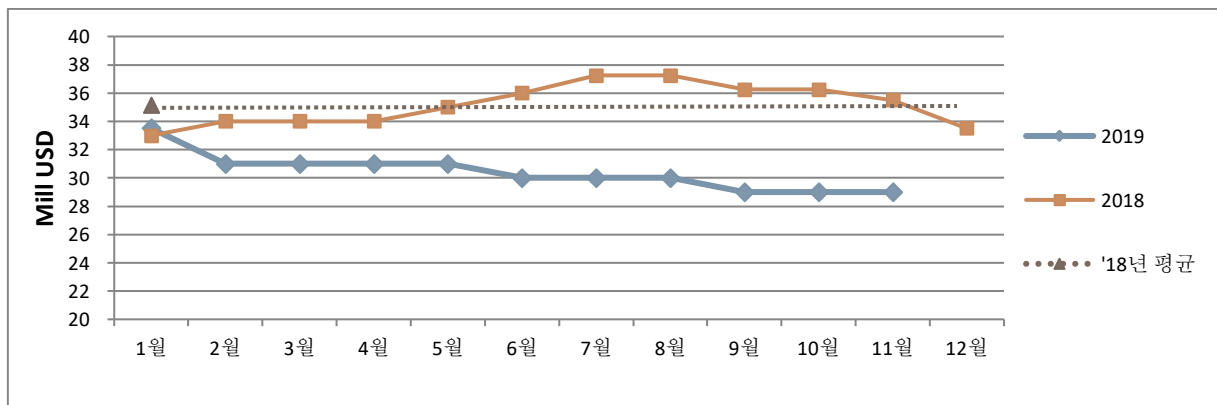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9	CAPE 180K	선가	33.50	31.00	31.00	31.00	31.00	31.00	30.00	30.00	29.00	29.00	29.00		30.41
		전월대비	0.0%	-7.5%	0.0%	0.0%	0.0%	0.0%	0.0%	0.0%	-3.3%	0.0%	0.0%		-
		전년대비	1.5%	-8.8%	-8.8%	-8.8%	-8.8%	-11.4%	-19.5%	-19.5%	-20.0%	-20.0%	-18.3%		-13.5%
	PMAK 76k	선가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전월대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7%	2.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SMAK 58k	선가	18.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50	17.50	17.00	17.00		17.18
		전월대비	0.0%	-5.6%	0.0%	0.0%	0.0%	0.0%	0.0%	2.9%	0.0%	-2.9%	0.0%		-
		전년대비	2.9%	-2.9%	-5.6%	-5.6%	-5.6%	-5.6%	-5.6%	-2.8%	-2.8%	-5.6%	-5.6%		-4.1%
	HA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전월대비	1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1.4%	21.4%	13.3%	9.7%	9.7%	9.7%	6.3%	13.3%	13.3%	13.3%	13.3%		12.7%
2018	CAPE	33.00	34.00	34.00	34.00	35.00	34.00	37.25	37.25	36.25	36.25	35.50	33.50		35.17
	PMAK	18.50	18.5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8.92
	SMAK	17.50	17.5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7.92
	HANDY (32k)	14.00	14.00	15.00	15.50	15.50	15.50	16.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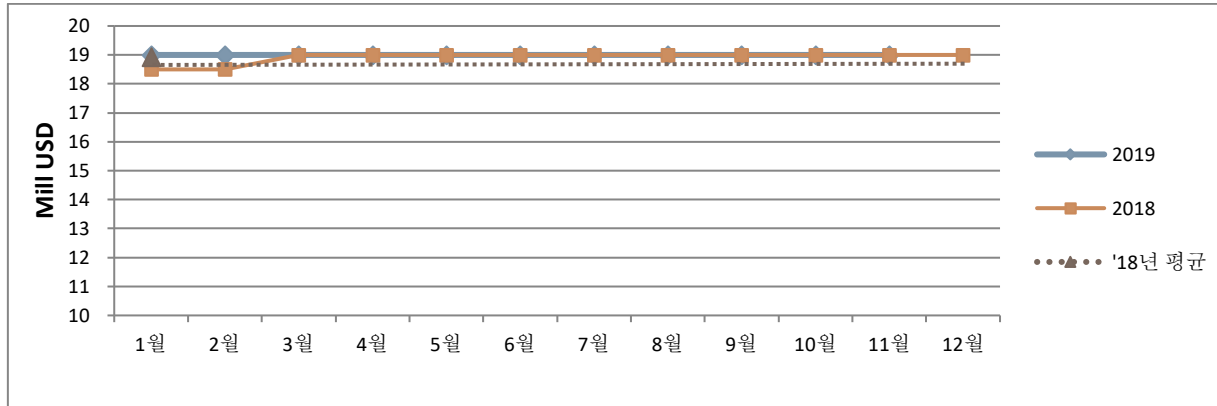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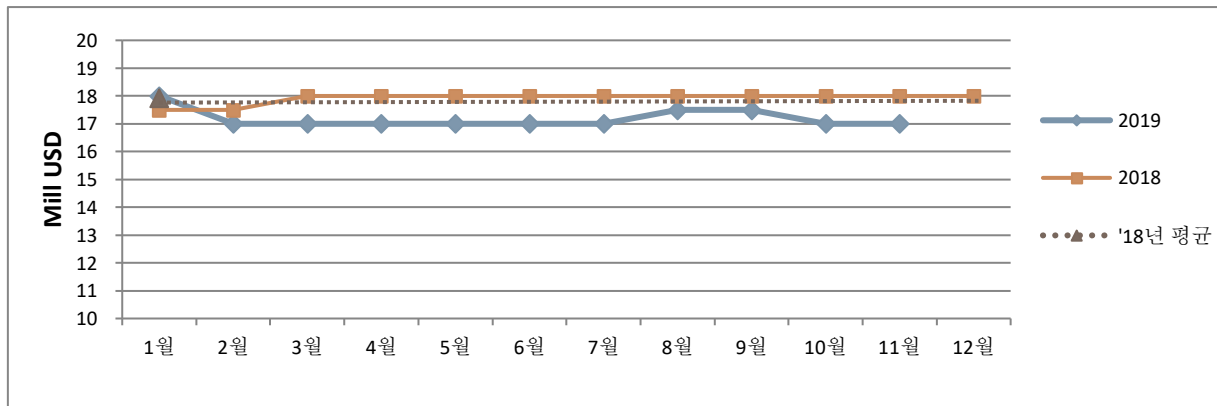


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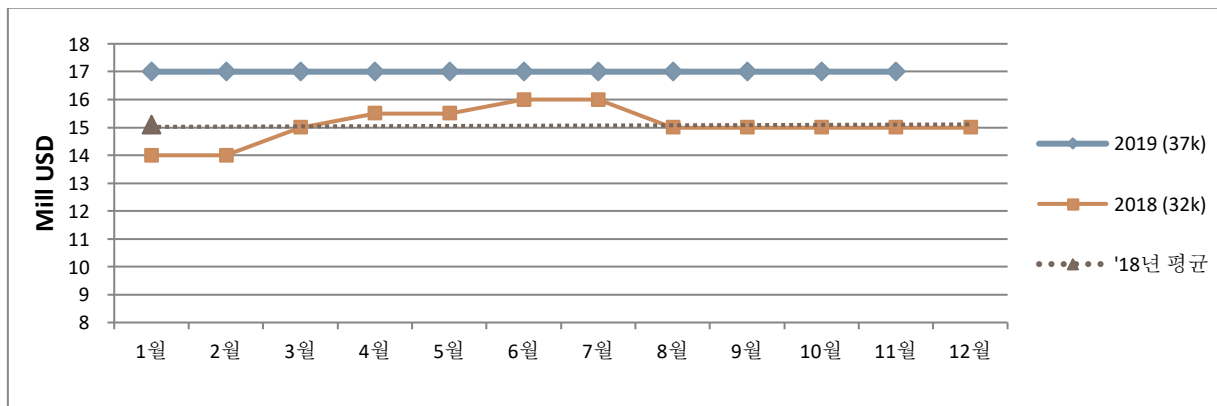
□ Pan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AZUL INTEGRA	203,272	2004	JAPAN	B&W		15.8	Chinese buyers (Xin Yuan Ocean)
BC	JAL KUMUD	76,302	2008	JAPAN	B&W	C 4x30t	12.75	Chinese buyers
BC	FURNESS ST KILDA	61,510	2010	JAPAN	B&W	C 4x30.7t	15.7	Far Eastern buyers
BC	DESERT MELODY	53,800	2006	CHINA	B&W	C 4x36t	7.65	Greek buyers
BC	BULK JULIANA	52,510	2001	JAPAN	MITSU	C 4x30.5t	6.5	Chinese buyers
BC	AKSON SARA	50,913	2001	JAPAN	B&W	C 4x30t	6.6	Undisclosed buyers
BC	MEGHNA PRINCESS	47,574	1995	JAPAN	SULZ	C 4x30t	3.5	Chinese buy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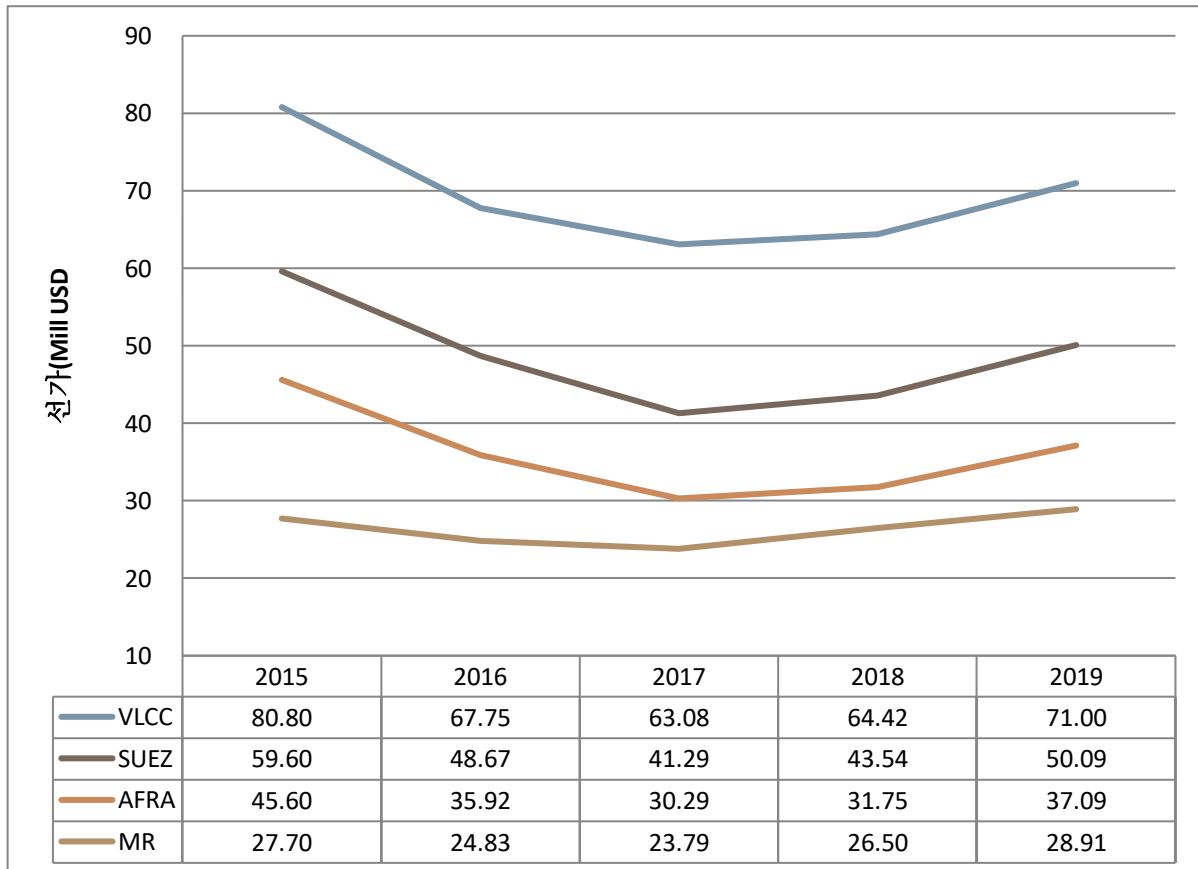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VLCC 310K	80.80	67.75	63.08	64.42	71.00
	9.04%	-16.15%	-6.89%	2.11%	10.21%
Suezmax 160K	59.60	48.67	41.29	43.54	50.09
	17.32%	-18.34%	-15.15%	5.45%	15.05%
Aframax 105K	45.60	35.92	30.29	31.75	37.09
	17.83%	-21.24%	-15.66%	4.81%	16.82%
MR 51K	27.70	24.83	23.79	26.50	28.91
	2.97%	-10.35%	-4.19%	11.38%	9.09%
Chemical Tanker IMO II 13K	12.60	13.92	12.42	11.77	10.95
	-3.08%	10.45%	-10.78%	-5.20%	-6.93%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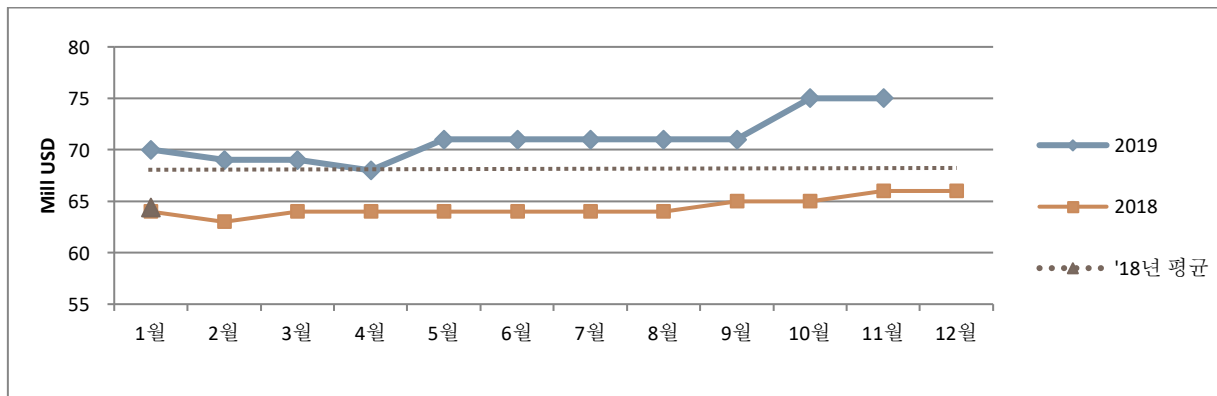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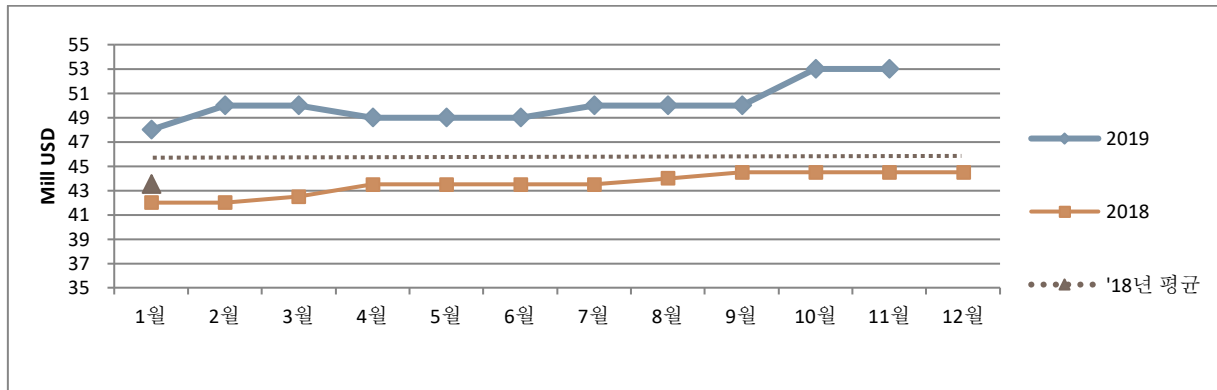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9	VLCC 310K	선가	70.00	69.00	69.00	68.00	71.00	71.00	71.00	71.00	71.00	75.00	75.00		71.00
		전월대비	6.1%	-1.4%	0.0%	-1.4%	4.4%	0.0%	0.0%	0.0%	0.0%	5.6%	0.0%		-
		전년대비	9.4%	9.5%	7.8%	6.3%	10.9%	10.9%	10.9%	10.9%	9.2%	15.4%	13.6%		10.2%
	SUEZ 160K	선가	48.00	50.00	50.00	49.00	49.00	49.00	50.00	50.00	50.00	53.00	53.00		50.09
		전월대비	7.9%	4.2%	0.0%	-2.0%	0.0%	0.0%	2.0%	0.0%	0.0%	6.0%	0.0%		-
		전년대비	14.3%	19.0%	17.6%	12.6%	12.6%	12.6%	14.9%	13.6%	12.4%	19.1%	19.1%		15.0%
	AFRA 105K	선가	35.00	35.00	35.00	35.00	35.00	37.00	38.00	38.00	38.00	41.00	41.00		37.09
		전월대비	6.1%	0.0%	0.0%	0.0%	0.0%	5.7%	2.7%	0.0%	0.0%	7.9%	0.0%		-
		전년대비	9.4%	16.7%	12.9%	9.4%	9.4%	15.6%	18.8%	18.8%	18.8%	32.3%	28.1%		16.8%
	MR 51K	선가	28.00	28.00	28.00	28.00	28.00	29.00	30.00	30.00	29.00	30.00	30.00		28.91
		전월대비	1.8%	0.0%	0.0%	0.0%	0.0%	3.6%	3.4%	0.0%	-3.3%	3.4%	0.0%		-
		전년대비	12.0%	12.0%	7.7%	4.7%	4.7%	8.4%	12.1%	15.4%	7.4%	11.1%	9.1%		9.1%
	CHEM IMO2 13K	선가	11.00	11.25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0.75	10.75	10.75		10.95
		전월대비	0.0%	2.3%	-2.2%	0.0%	0.0%	0.0%	0.0%	0.0%	-2.3%	0.0%	0.0%		-
		전년대비	-15.4%	-10.0%	-12.0%	-10.2%	-6.4%	-4.3%	-4.3%	-4.3%	-6.5%	-4.4%	-2.3%		-6.9%
	2018	VLCC	64.00	63.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5.00	65.00	66.00	66.00	64.42
		SUEZ	42.00	42.00	42.50	43.50	43.50	43.50	43.50	44.00	44.50	44.50	44.50	44.50	43.54
		AFRA	32.00	30.00	31.00	32.00	32.00	32.00	32.00	32.00	32.00	31.00	32.00	33.00	31.75
MR		25.00	25.00	26.00	26.75	26.75	26.75	26.75	26.75	26.00	27.00	27.00	27.50	26.50	
CHEM		13.00	12.50	12.50	12.25	11.75	11.50	11.50	11.50	11.50	11.25	11.00	11.00	11.77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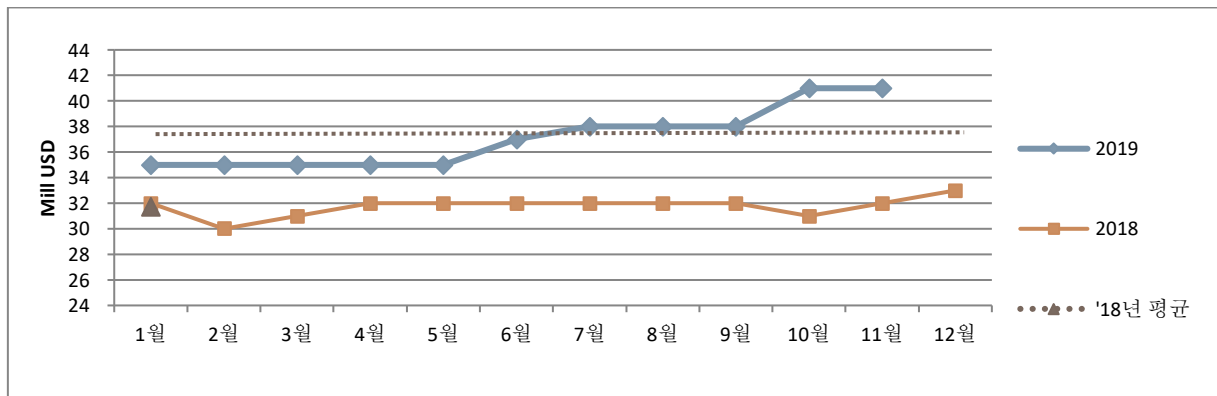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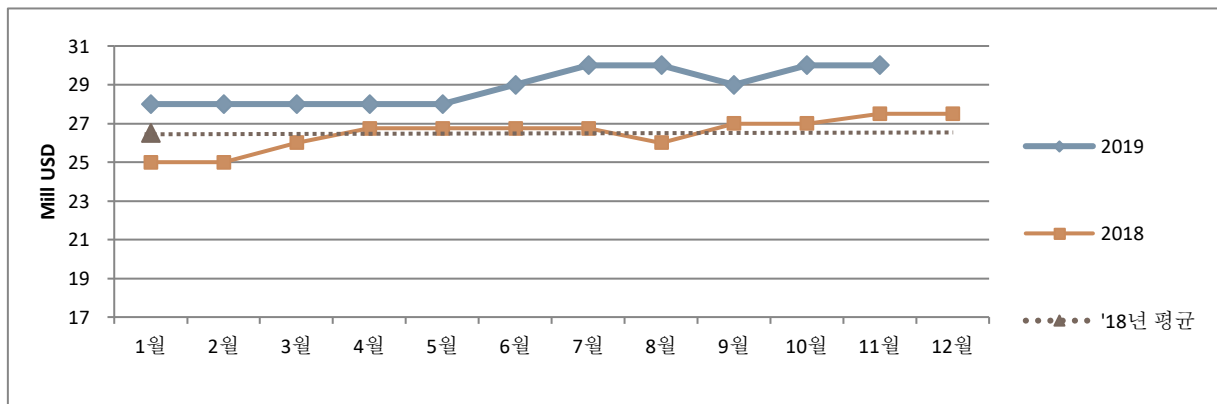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GHILLIE	300,000	2019	KOREA	B&W		103	Undisclosed buyers Inc 5Y TC
TANKER	BRAMCO 1	37,700	1990	KOREA	SULZ		3	Vietnamese buyers Auction sale
TANKER	OCEAN QUEST	35,000	2000	CHINA	B&W		6.5	Undisclosed buyers DD due
OIL/CHEM	ANDES	49,962	2011	JAPAN	B&W		21.5	Danish buyers (Norden)
OIL/CHEM	HIMALAYA	49,936	20011	JAPAN	B&W		21.5	
OIL/CHEM	HERMITAGE BRIDGE	47,880	2003	KOREA	B&W	3	10.5	Undisclosed buyers, ice class 1A
OIL/CHEM	ANICHKOV BRIDGE	47,842	2003	KOREA	B&W	3	10.5	
OIL/CHEM	TEAM TOCCATA	46,764	2004	CROATIA	MAK	2	12.85	Ukrainian buyers
CHEMICAL	TEAM TOSCA	46,764	2004	CROATIA	MAK	2	12.85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MPP	ABB BENTJE	12,786	2004	HOLLAND	MAK	698	TEU	4.5	Undisclosed buyers
MPP	LISANNA (td, heavy lifter)	12,744	2004	CHINA	MAK	665	TEU	4.5	Undisclosed buyers, ice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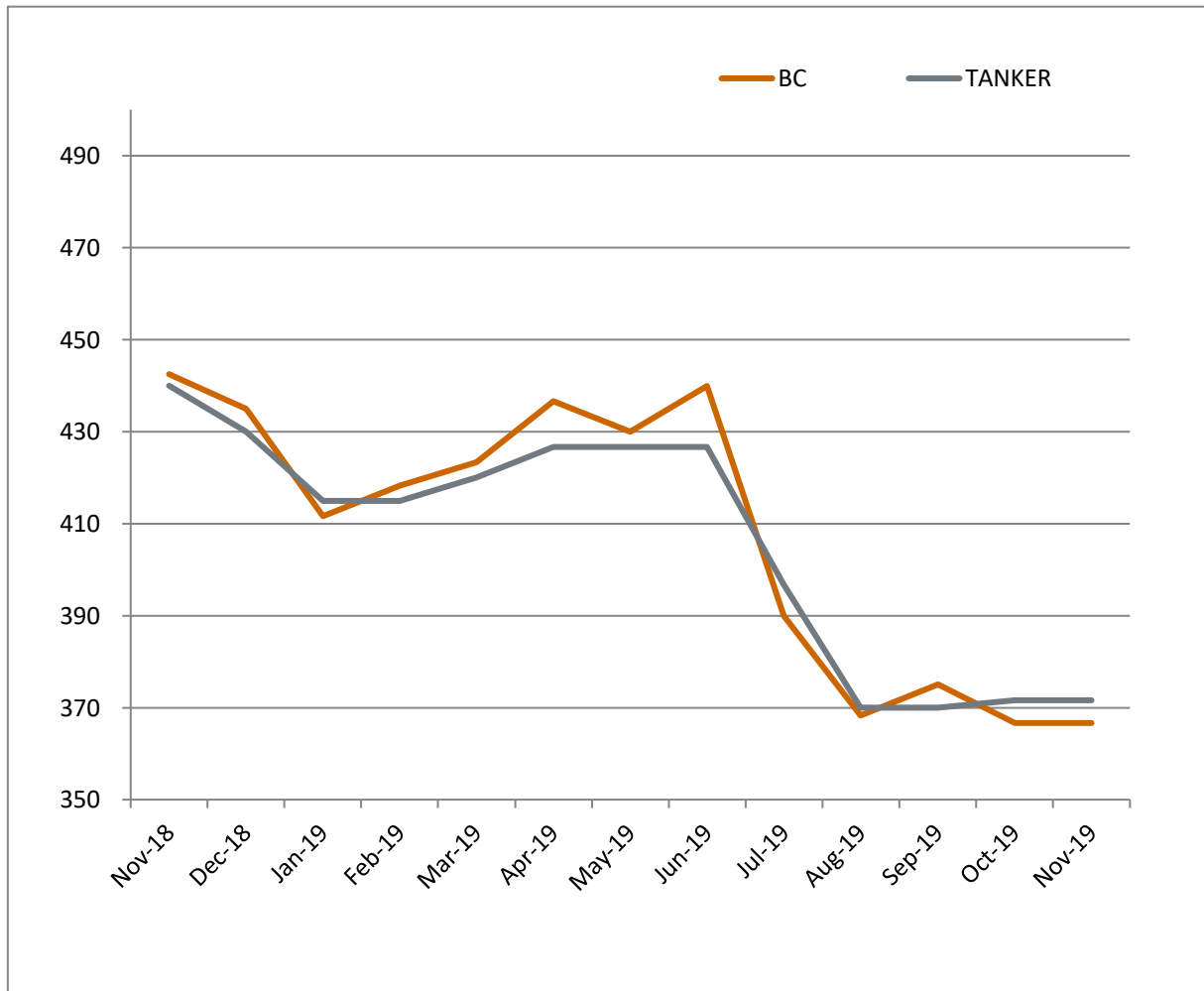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7 평균		2018 평균		2019 평균		2018 년 11 월	2019 년 11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65.21	37.5%	432.92	18.5%	400.91	-7.4%	440.00	371.67	0.0%	-15.5%
BC	370.83	38.5%	440.63	18.8%	402.42	-8.7%	442.50	366.67	0.0%	-17.1%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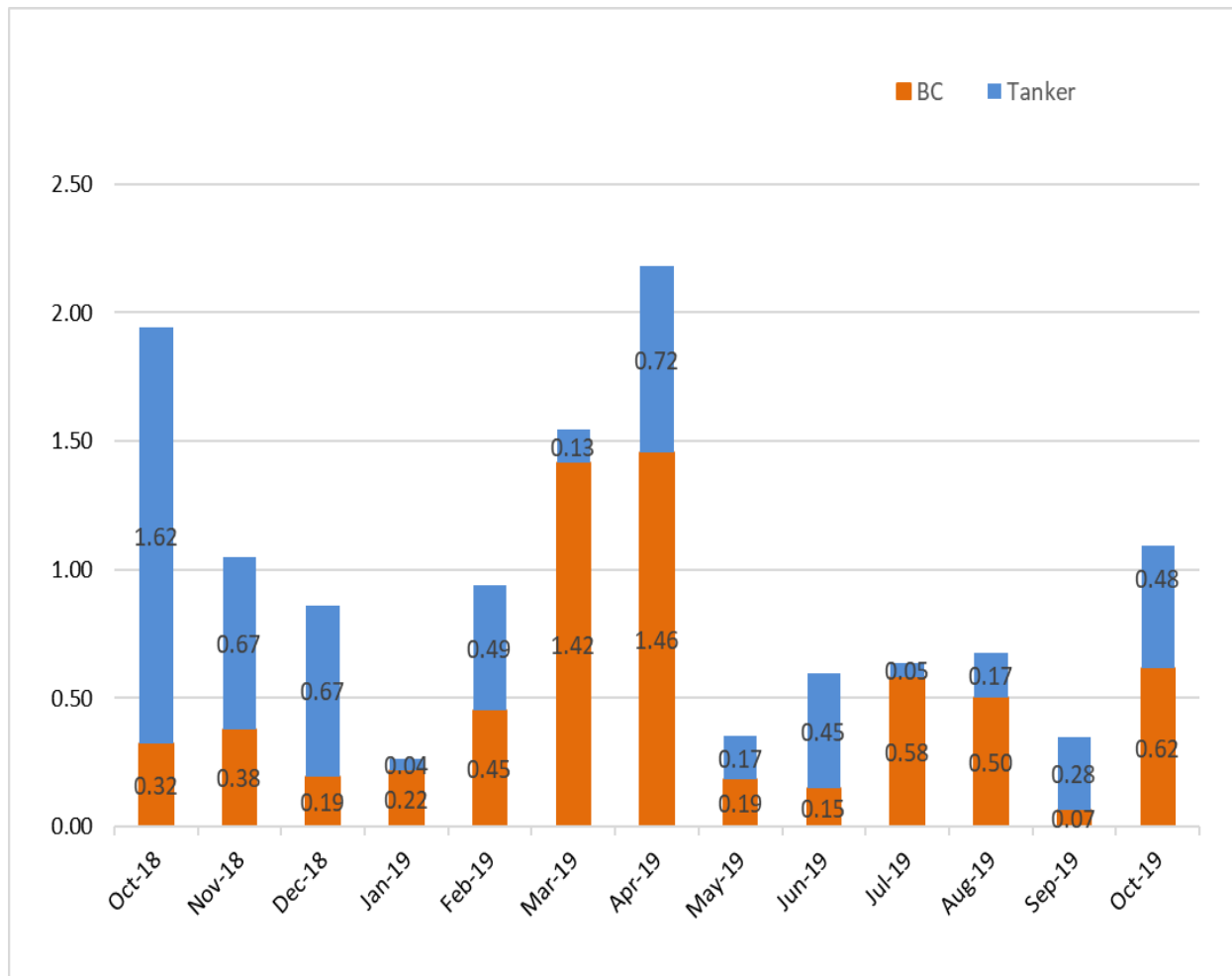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8 년		2019 년 누적			2018 년 10 월		2019 년 10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0.86	195	2.90	13.9%	70	35.9%	1.62	15	0.48	-70.5%	14	-6.7%
BC	4.20	112	5.42	128.9%	92	82.1%	0.32	9	0.62	90.1%	8	-11.1%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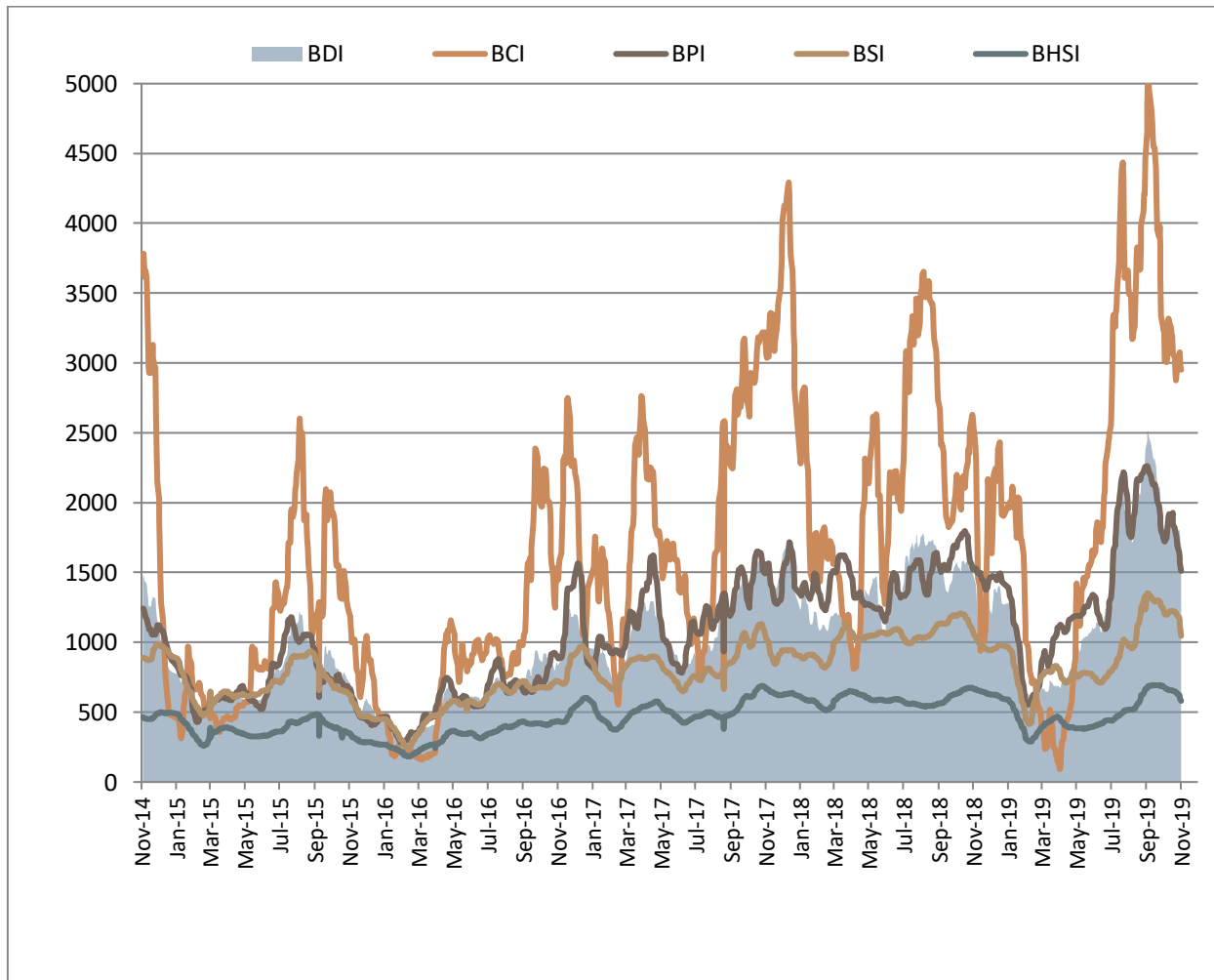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CHARM	19,274	8,088	1981	GERMANY	MAN	364	BANGLADESH
CONT	JACOB	24,069	10,809	2006	CHINA	B&W	410	BANGLADESH
TANKER	DELIGHT	8,614	2,810	1992	JAPAN	MITSU	518	AS IS COLOMBO, incl. abt 552t stainless steel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19-11-01	2019-10-25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697	1801	▼-104.00	2518	290
BCI	2950	3009	▼-59.00	5043	92
BPI	1513	1695	▼-182.00	2262	282
BSI	1045	1187	▼-142.00	1351	243
BHSI	580	631	▼-51.00	692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94.50	▲2.00	276.00	▲1.50	307.50	▼-5.00
IFO180	423.50	▲1.00	302.50	▼-2.00	359.00	▼-5.50
MGO	579.50	▼-16.50	557.00	▼-17.00	611.50	▼-13.00
LSMGO	579.50	▼-24.50	555.50	▼-22.00	-	-
VLSFO	546.00	▼-4.50	500.00	▼-16.00	572.00	▲16.00

❖기준일 : 11 월 01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19-11-01	2019-10-25	CHANGE
미국 달러	1161.70	1171.00	▼-9.30
일본 엔(100)	1075.50	1078.02	▼-2.52
유로	1295.47	1300.10	▼-4.63
중국 위안	164.93	165.70	▼-0.77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트렌드 지식사전]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RCEP 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 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 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르셉'이라고도 한다. 역내 국가들의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해 RCEP 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 이슈 발생 배경

RCEP 은 2013 년 5 월 1 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 년가량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 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 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RCEP 의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 로써 세계인구 절반, 전세계 GDP 의 3 분의 1 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RCEP 에는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RCEP 타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슈 흐름

4 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아세안 10 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 개국 정상들이 타결을 선언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우리나라 최초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RCEP 타결 시 10 년간 우리나라 실질 GDP 는 1.21~1.76%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도 113 억 5100 만~194 억 5600 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RCEP 에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RCEP 회원국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한 신남방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아세안 FTA 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또한 역내국의 통합 원산지 기준이 설정되면서 기존 FTA 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신남방 핵심국가들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7 년 만에 타결 된 가운데, RCEP 타결시 미·중 갈등 완충재 역할과 같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농·수산물 산업을 약화할 우려의 목소리와 같이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네이버 블로그(비플라이소프트)]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 **RESEARCH**

Anna Lee (이혜란 과장)
 Tel. 070-7771-6403
 Mob. 010-2258-5561
 snp@stlkorea.com
 anna@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 070-4800-0153)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 070-4800-0151)
 패키지/허니문/골프 (김홍모 대리 Tel. 070-4800-0150)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 010-2777-4027)